

禾北里名稱의 變遷과 禾北校의 設立

白 子 勳

目 次

1. 머리말
2. 禾北里 名稱의 變遷
3. 禾北國民學校의 設立
4. 結論

1. 머리말

禾北은 나의 祖上이 대대로 살아온 곳, 내가 태어나 살아온 곳이다. 문득 나의 先祖들은 무엇이 좋아 禾北에 定着하여 살아 왔으며 나는 禾北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무엇을 배우고 살아 왔는가 하는 점을 뒤늦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 1988年 11月 18日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주최로 禾北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 參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筆者는 많은 것을 느꼈고 禾北과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 禾北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에 禾北에서 태어나고 禾北에서 자란 나로서도 禾北에 대하여 새로이 배워야 했다.

나의 전공이 自然科學 쪽이라 결국 자기 집안 來歷과 家譜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워 알게 된 꼴이 되고 말았다. 어찌 전공이 아니라 하여 자기 집안 내력과 자기 故鄉 來歷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주제 넘게 도 學問의 領域을 떠나 내 故鄉에 대한 來歷을 조사 정리하게 되었다. 禾北洞이란 名稱은 別刀 禾北 拱北 등으로 불려져 왔고 현재는 禾北이라 불려지고 있으나 어찌해서 이렇게 불려지고 쓰여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學者들이 文獻의 根據나 音韻變遷의 根據에서 찾지를 않고 抽象的 또는 傳說的으로 部分的 전해지는 말들을 記錄하여 전해지고 있으며 더욱 禾北國民學校의 設立에 대하여 濟州教育史(濟州道教育委員會 刊) 등에 잘못 記述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 部分에 대하여 조사 정리한 것을 발표하는 바 많은 修正을 바란다.

2. 禾北里 名稱의 變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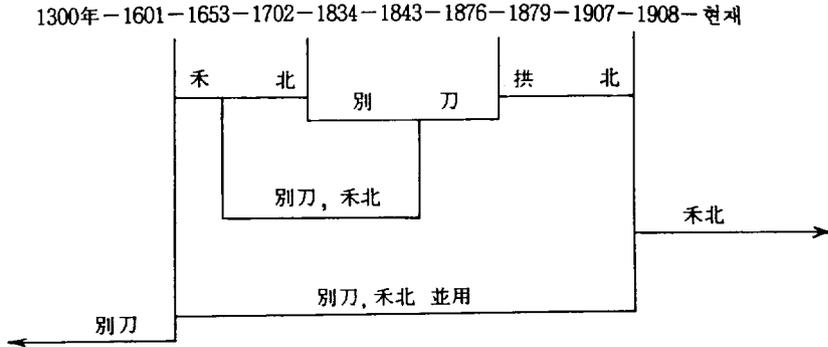
1. 里名 使用의 時代的 變遷

현재 行政區劃上 禾北洞은 禾北 巨老 黃蛇坪 등의 自然部落을 합쳐 行政單位로 하고 있다. 日帝時代는 區制로 一區 二區 三區로 分離되었었다. 이 세 부락 중 巨老와 黃蛇坪 마을은 예나 지금이나 里名이 달리 불리워진 적이 없으나 禾北에 대하여는 別刀, 禾北, 拱北, 등으로 불려지고 또 쓰여져 왔다. 이러한 里名이 쓰여져 온 來歷에 대하여는 분명치 않다. 다만 文獻上으로는 高麗 忠烈王 26년(서기 1300년)에 耽羅를 동서로 나누고 10縣을 설치하면서 別刀縣으로 記載하고 서쪽에 소속시킨 기록이 처음이다.¹⁾ 그 이후 서기 1601년에 발간된 南槎錄에 別刀浦라고 하였으며 서기 1653년 李元鎮 牧使의 耽羅誌에는 水戰所로서 禾北浦라고 記述하여 文獻上으로는 처음으로 禾北이라는 名稱이 쓰여진다. 서기 1702년 李衡祥 牧使의 「耽羅巡歷圖」에는 禾北城操 別

1) 濟州道誌(上) p 91.

禾北里名稱의 變遷과 禾北校의 設立

刀浦里 別刀浦口 등으로 記錄되어 있는 것들이 서기 1700년대 이전 記錄으로 찾아볼 수 있다. 1800년대가 되면서 李源祚 牧使의 「耽羅誌草本」에 禾北鎮이라고 記錄되어 있는 것들이 文獻上에 나타나며 行牧官이 인정하는 成籍戶口帳에 나타나는 里名을 보면 1834年 中左面 別刀里 第 統 戶라 하여 里名이 別刀라고 기록되었다. 서기 1879년부터 1907년까지 成籍戶口帳에는 別刀里라 쓰여졌으며 1908년부터는 다시 禾北으로 쓰여지면서 1908年에 禾北里章(禾北里官印)이 찍혀진 文書가 發見되는 바 이로부터 현재까지 公·私文書에 統一的으로 禾北이라고 쓰여져 내려 오고 있다. 이상의 기록들에서 연대별로 圖示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 위 圖示는 公私文書에 나타난 연대를 기준하였음

1938年 禾北橋가 建設되고 그 다리의 名稱을 別刀橋라고 刻하여 붙인 것이 마지막이고, 別刀라는 이름은 이제 옛이름이고 俗名이 되어 버렸다. 拱北이라고 쓰여진 文獻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成籍戶口帳의 住에 中面 또는 中左面 拱北里라고 쓰여졌고 그 쓰여진 기간이 짧다. 어쨌든 里名은 別刀, 禾北, 拱北 등으로 불리어 왔고 이러한 이름들이 때로는 並用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마을 이름들이 붙여 지게 된 데는 祖上들이 오랜 동안 이 곳에 삶의 터를 닦고 살아 오는 사이에 여러 가지 사연도 많고 애환도 많았으리라 생각

된다. 마을 이름이 우연히 붙여 지지는 않았고 이러한 사연과 애환이 한데 서리어 붙여졌으리라 생각된다.

2. 別刀 里名의 由來

그 어느 마을이나 里名이 붙은 由來에 대해서는 鄉里內에서 傳來되는 말과 傳說的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바 別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지만 유독 別刀에 관해서는 많은 전설적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으며 地理的 語源的 풀이들이 있는 바 다음과 같다.

(1) 옛부터 別刀浦는 陸地를 드나드는 唯一한 浦口로 사연도 많고 이별의 슬픔도 많았던 곳이어서 칼로 애끊는 듯하는 이별의 아픔과 이별을 한 다음에는 一字 소식이 없어 단호한 離別을 하는 곳이란 뜻에서 나눌 別(別)字와 칼도(刀)字를 썼다는 말이 전해진다.²⁾

(2) 別刀浦는 옛날 官憲들이 陸地로 드나들던 浦口로 牧使가 떠나갈 때는 紗羅峰 앞 옛 忠魂墓地 마루턱(俗名 고온이 모르: 그릇을 굶는 마루 즉 경계선 또는 加恩旨: 善政을 한 官憲들과 이별을 함에 있어 그 은혜가 더해진다는 뜻)까지 마중을 하였다고 하며 여기에서 牧使와 이별의 마지막 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善政을 한 牧使와의 이별은 애끊는 듯한 離別이고 暴政을 한 牧使와는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斷乎한 이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데서 애끊는 이별과 시원한 이별을 함축하여 이별을 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別刀라고 自然發生的으로 불리워졌다고 한다.³⁾

(3) 禾北峰 東北 기슭 벼랑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곳을 俗稱 “실래”라 하며 실래(膝崖=술애-실래 즉 斷崖란 뜻임)라는 말은 方言으로 “벨”이라 하며 벨로 가는 “도”(출입구)란 뜻에서 벨도(별도의 俗名)라고 불려진 것이 아닌가 한다.⁴⁾ 한편 실래는 깎아 지른 벼랑으로 마을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므로 이

2) 白子勳 蒐集

3) 濟南新聞 1978. 9 濟州의 鄉史, 白子勳 註解

4) 白子勳 註解

를 방지하기 위하여 칼 도字 3개 즉 別字의 刀, 匕와 刀字를 써서 別刀라고 구전되고 있다.⁵⁾

(4) 禾北峰만은 濟州道內 많은 峰들 중에 유일하게 峰에 稜線이 있으며 西南으로 뻗어 있다 하여 別刀峰, 別刀浦라고 연유되었다고 한다.⁶⁾ 이 稜線에 軍威 吳氏 先墓가 있는데 風水地理的으로 이 묘자리는 將軍이 차고 있는 칼자루형이라고 하며 이 吳氏 家門에서는 후손 중에 將軍이 태어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⁷⁾

(5) 別刀는 옛날 帆船으로 陸地를 드나들던 連陸 浦口로 濟州 섬의 關門이었던 關係로 官妓나 일반 기생이 많았으며 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현상이며 이 때문에 일시 정들었던 郎君을 배를 태워 離別을 한 다음 칼로 찢른 것과 같이 냉혹하게도 이후에 소식이 없다는 데서 別刀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⁸⁾

(6) 別刀라는 말을 語源的 側面에서 보면 別字는 다를 別(異也), 나눌 別(分解), 분별할 別, 가를 別(辨也), 문서 別(書卷), 떠날 別, 이별 別(分手), 영결할 別(訣也), 차이 別(差異) 등의 뜻으로 다양하게 쓰여지며 別刀라고 할 때의 뜻은 다음 글자인 刀字와 연계하여 볼 때 떠날 別 이별 別(分手)로 해석이 되며 刀字는 칼 도, (兵刀) 거루 도, (小船) 돈이름 도 (錢也) 등의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⁹⁾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칼 도字로 해석하여 마을 이름을 지었거나 물건 지명 이름 등을 지은 것은 부드럽지 못한 해석이라고 여겨 (칼 도字로서는 이름에 쓰여진 경우가 없음) 別刀라고 할 때 떠날 別 이별 別로 해석한다면 다음에 오는 刀字는 칼도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거루 도(小船)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루”라는 말은 우리 말의 거룻배의 준말로 “거룻배”의 뜻은 돛없는 작은배, 小船, 帆船으로 貨物을 실어 나른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있다. 거루라는 말은 標準語의 “나루”라는 뜻으로 강가나 냇가, 또는 좁은 바다목의

5) 白子勳 註解

6) 《濟州說話集成》(I)

7) 白子勳 蒐集

8) 金奉鉉, 《濟州道の地域考》, 圖書刊行會, 日本語版

9) 褻三植 大漢韓 辭典

배가 건너 다니는 일정한 곳, 江口, 渡口, 渡頭, 渡津, 津渡, 津頭의 뜻이다.¹⁰⁾ 이러한 의미에서 別刀라고 할 때는 떠날 별 또는 이별 별의 別字로 해석하고 거루도의 刀字로 해석하여 “離別을 하는 거루” “이별을 하는 나룻터”의 뜻이다.

더욱 別刀浦라 하여 浦字를 쓸 때는 刀字의 해석은 “거루 도”라 해석하여야만 옳다. 옛날 別刀浦의 역할로 보아 陸地로 건너가고 건너오는 連陸 浦口로 나룻배가 닿는 곳이기 때문에 別刀라고 이름을 지어진 것으로 語源的 解釋이 된다.¹¹⁾

(7) 순수 옛날 말로 別刀를 “벨또” “벨도”라 불렀다. 벨또→벨도로 음운 변천이 되어 벨도라고 불렀다. 벨도란 벨난 문, 즉 별난 出入口, 유별난 사람이 다니는 문, 특별한 사람이 다니는 문의 뜻으로 “벨”은 유별난, 특별한의 뜻이며 “도”는 정문, 출입문을 의미한다. (밭도, 케왓도, 잣도, 집도 등) 따라서 유별난, 사람 즉 특별한 (別)사람이 출입하는 거루 (刀)라는 데서 別刀라는 이름이 쓰여질 수도 있다.¹²⁾

(8) 우리 말에서 배도가 변하여 별도가 된 것이 아닌가 해석도 된다. “배의 도”란 배가 다니는 어귀, 배가 드나드는 도를 뜻하며 이는 곧 浦口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의 도가 줄어 배도 (배길, 배멀미, 배사공 등)가 된다. 이를 漢字로 表記하는데 刀字만으로도 배도의 뜻이 함축되었지만 이를 더 명확하게 別字(떠날 별)를 써서 別刀라고 표기된 것이 아닌가 類推解釋이 된다. 즉 배의 도, 배도, 別刀는 같은 뜻이 된다.¹³⁾

3. 禾北 里名の 由來

別刀를 禾北이라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1600年 이후부터이고 그 이전에는 文獻에 別刀라고 기술되고 있으나 1600年代 이후에는 別刀, 禾北 등이 병용되

10) 李熙昇編, 국어대사전

11) 白子勳 字解釋 및 語源的 解釋

12) 白子勳 類推解釋

13) 白子勳 語源的 解釋

어 왔다. 別刀에서 禾北으로 불려지게 된 연유에 대하여는 알 길이 없다. 禾北이란 뜻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지금의 巨老境에서 볼 때 禾北一洞地域은 風水地理的으로 벼의 이삭 형국이며 巨老의 북쪽 또는 巨老의 뒤에 있다 하여 벼화(禾)字, 뒤북, 북녘북(北)字를 써서 禾北이라고 口傳되고 있다. 원래 부락 형성이 巨老가 禾北보다는 앞서고 班村으로서 자기들을 중심한 呼稱이다.¹⁴⁾

(2) 現 教育大學의 남쪽과 서쪽에 옛부터 논밭(畝)이 있어 벼를 많이 栽培하여 巨老에서 볼 때 “벼 재배지의 뒤”라고 하여 禾北이라 하였다고 口傳되고 있으나¹⁵⁾ 이 부분에 대하여는 筆者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現 教育大學 남쪽과 서쪽 東濟院 일대 논밭이 1600年代 이전에서부터 벼를 재배하여 왔는지에 대해선 기록이나 고증이 없다.

(3) 옛 別刀浦는 連陸 浦口로서 濟州의 關門이었다. 그러므로 濟州島內에서 필요한 生活用品 내지 官需物品이 別刀浦口를 통하여 陸地로, 陸地에서 島內로 들어 왔다. 당시 벼가 이 浦口를 통하여 북쪽에서 들어 왔다는 데서 禾北이라 하였다는 口傳도 있다.¹⁶⁾

(4) 詩人이던 李殷相은 70여 년전 “濟州紀行 소감”에서 禾北과 別刀의 語源은 원래 “불뒤”였는데 그 후 漢字로 표기하면서音を 따 “別刀”가 되었을 것이라고 推察하였다. 우리말에 “불”은 聖域을 뜻하는데 濟州의 聖域은 三姓穴이며 그 뒤에 있기 때문에 “불뒤” 즉 鬮뒤→別刀로 변해 왔으며 禾北이란 이름도 그 전 名稱이 불뒤와 拱北에서 연유되었다는 것인데 拱(꽃힐공)字에 北을 합쳐 쓴 것은 濟州 섬의 最北方에 끝인 마을을 뜻하며 그것이 나중에 불뒤와 회석되어 현재의 禾北으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金光秋(書藝家, 禾北出身)氏도 이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였다.

(5) 위 (4)項에 대하여는 筆者는 매우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 불뒤가 別刀로, 불뒤와 拱北이 회석되어 禾北으로 변하여 표기되었을 것이라는 부분에서 禾北이란 名稱과 拱北이란 名稱이 쓰여진 연대가 禾北이란 名稱이 쓰여진

14) 白子勳 菟集

15) 白子勳 菟集

16) 白子勳 菟集

것이 300여 년 앞서부터이므로 불뒤란 말과 拱北이란 말이 변하고 회석되어 禾北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전연 맞지 않으며 拱(곶힐 공)字의 음이나 뜻이 禾字로 변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 즉 聖地라고 한 바 禾字와는 연결이 되지 않으며 方言에서 “불”¹⁷⁾ 現代語에서 “불”¹⁸⁾이란 말이 聖域으로 해석된 부분이 없으며 또한 聖域이란 뜻도 없다. 그러므로 “불”이 아니고 벨인 것이다. 그래서 벨뒤, 벨또, 벨도라고 옛부터 불러 왔다.

이때 벨은 方言으로서 (威境道, 平安道 一部, 濟州道) 벨로=별로, 벨나계=유별나계, 벨명=별명, 벨미=별미, 벨호 벨양=별호(別號) 등 別의 뜻을 나타내며 이러한 뜻에서 別刀라는 名稱은 成立되며 한편 “벨”이란 方言으로 벨, 빌은 별 즉 星을 뜻한다. (방언에서 벨장계 또는 빌장계라는 말은 隕星, 流星을 뜻함) 文獻을 통해 고찰하여 보면 「耽羅誌」에 “新羅朝高厚高濟及季船海來朝王喜號厚日星主濟日王子…”라 하여 高厚에게 星主를 賜하였으며 高麗太朝20年 戊戌 耽羅國主를 星主로 賜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또 朝鮮朝에 들어와서는 濟州牧使를 조정에서 星主라 칭하였던 바 “벨뒤”라는 말은 星主가 있는 뒤의 뜻이 되고 星은 귀한 것 또는 매우 어려운 일 (별따가 보다 어렵다)로 비유되는 바 귀한 사람이 있는 뒤라는 뜻으로 李殷相의 “불뒤” “벨뒤”의 뜻이 聖域이 있는 뒤의 뜻으로 해석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星主가 있는 뒤, 귀한 사람이 있는 뒤의 뜻으로 벨뒤라고 쓰여졌다면 星北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는데 別刀로 표기한 것은 星主가 있는 뒤, 또는 귀한 사람이 있는 뒤의 뜻으로 벨뒤라고는 類推解釋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벨뒤는 벨또, 벨도로 變遷되면서 당시 浦口의 기능으로 보아 別刀(刀는 거루도)로 漢字 表記된 것으로 類推解釋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方言的 地名으로 베릿내(別刀川), 베리오름(別刀峰) 등이 있는데 이때의 베는 “벨”인 것이다. 따라서 벨잇내→베릿내, 벨이오름→베리오름 등으로 音韻變遷되면서 불러졌다. 한편 拱北이란 文獻上에는 쓰여지지 않았으며 拱字의 음이나 뜻이 禾字로 변할 수 있는 類推解釋은 성립되지도 않으며 拱北이라고 쓰여진 연대가 別刀, 禾北보다 300

17)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 朴用厚, 〈濟州方言研究〉

18) 李熙昇, 국어대사전

여 년 뒤이므로 拱字가 禾字로 變形 사용되었다는 점과 禾北보다는 拱北이 먼저 쓰여졌다는 李殷相의 견해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서 歷史的 根據로도 성립되지 않아 여기에서 바로 잡아 두며 禾字나 別字와는 관계없이 拱北이라 불렀던 것이 아닌가 한다.

4. 巨老 里名의 由來

文獻에 巨老라고 나타나는 것은 1700年代 後期에 그려졌다는 古地圖에 巨老村이라고 표기되었으며, 1800년대 地圖에는 巨老村, 1861년에 제작된 大東與地圖에는 禾北으로 표기되고 있어 巨老라고 쓰여진 유래는 다음과 같이 구전되고 있다.

(1) 設村年代로 보아 巨老보다는 富錄이 먼저 사람이 살았으며 富錄에서 살던 사람이 차츰 해변가로 내려오면서 처음에는 집도 없이 길가에 살았다 하여 居路라고 하였다고 구전되고 있다.¹⁹⁾

(2) 別刀浦口로 들어오던 사신이 東濟院에 이르러 동행한 사람에게 마을이름을 묻고는 마침 南極의 老人星이 비었으니 “巨老”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이 때부터 巨老라고 하였다고 口傳된다.²⁰⁾

(3) 現 巨老境內에 地名으로 “늙은이터” 또는 “늙은이왓”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늙은 노인이 살았다 하여 巨老라는 이름이 쓰여졌다고 한다.²¹⁾

(4) 鄉里內 노인들의 옛 발음은 “거리” 또는 古老浦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漢字를 가지고 우리 말로 표기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本音을 자유자재로 轉用하여 使用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巨老는 적어도 지금부터 400여 년 이상의 歷史를 가진 마을로 延安金氏의 濟州入島祖인 金安寶가 정변을 피하여 濟州島에 들어와 一徒里에 거주하여 후진 양성을 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그 아들 金福壽는 지금의 巨老에 千余丁步의 牧馬場을 개설 대대적으로 牧畜業을 하여 新天地의 開拓者로서 왕성한 의욕과 업적을 남겼다. 宣祖 25年(1591년) 壬辰

19) 吳成贊 蒐集

20) 吳成贊 蒐集

21) 金柄夏 啓明大教授 蒐集

倭亂이 일어난 전후 7年間 계속되는 사이에 軍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 牧場은 國馬場으로 징발당하게 되었다. 여기에 巨老라는 地名의 巨는 “義大하다”는 뜻으로 湄은 “거” 訓은 “크”가 되므로 語源은 “크”에서 “키”로 變化하였으며 “리”는 村里를 의미하는 것으로 옛날 큰 부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巨老”라는 글자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²²⁾

(5) 鄉里 사람이나 주위 마을 사람들이 옛날 그대로 불러왔던 이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語源的 解釋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0여 년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루”라고 불렀고 지금도 주변 마을의 노인들은 “거루”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거루”라는 말은 앞서도 기술한 바 刀字 즉 거루 도字이므로 옛날 제주섬 내의 각 고을에서 陸地로 가기 위하여 別刀浦口가 있는 주위의 마을에 모여 들어 出船할 때까지 留宿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보면 거루 村이 된다. 순수 우리말의 거루를 漢文으로 표기하면서 巨路, 巨老라고 쓰여진 것이 아닌가 語源上 정리가 가능하며 別刀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禾北 쪽이 아니라 巨老 쪽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理由 중의 하나는 別刀浦口는 水戰所이며 鑛이 있는 곳으로 이른바 軍域地에 해당되는 바 사람이 많이 살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고 민간인이 사는 本居地 또는 선비가 살았던 곳이 巨老 쪽이 아니었나 생각되며 따라서 別刀라고 하는 본 마을은 巨老 쪽이라고도 생각된다.²³⁾

3. 禾北國民學校의 設立

禾北國民學校는 禾北里民들의 所要資金出損에 의하여 私立으로 設立되어 運營하여 오던 중 4·3事件으로 學校가 完全 소실되어 1948年度 이전 18回 卒業生까지 그 學籍簿 마저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學校의 設立年度, 設立者, 代表, 運營實態 등에 관하여는 正確한 사실을 알 길이 없다.

22) 金奉鉉 濟州島の地名考 日本語版

23) 白子勳 類推解釋

그간 濟州道內에서 教育史에 대한 많은 文獻들이 발간되었으나 禾北國民學校에 대한 부분은 사실과는 달리 많은 誤謬를 범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이 글을 빌어 사실 접근을 하여보고 바로 잡고자 한다.

1. 國民學校 設立의 社會的 背景

禾北國民學校 설립 당시 禾北里民들이 어떠한 목적하에 國民學校를 설립하였는지 建學理念은 오늘에 사는 禾北洞民이나 禾北校를 졸업한 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精神의 지주가 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불행하게도 이 부분에 대하여 전해지는 것이 없어 파악할 길이 없지마는 당시 社會的 背景과 禾北이 가지는 특수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禾北을 알면 禾北校의 設立 동기를, 禾北校 設立 동기를 알면 곧 禾北을 알 수 있는 相互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韓國內의 그 어느 學校나 建學理念이 뚜렷하나 禾北校만은 私立으로 설립되었으면서도 建學理念이 전해지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학교가 되고 말았다. 더욱 지금의 國民學校는 義務教育 機關으로서 일반화된 상태로 특별한 建學理念은 회석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禾北의 歷史的 背景과 社會的 背景을 살펴봄으로써 禾北校의 建學理念이나 설립 목적을 파악코자 한다.

1) 朝鮮時代 禾北의 教學

別刀浦口를 통하여 많은 流配人들이 드나 들었던 곳으로 流配人들의 대부분은 당대의 知識人들이었기에 그들의 直·間接 영향 그 자체가 強度 높은 教學의 자극이었으며 禾北地域은 나름의 독특한 教學文化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李承文은 中宗 14年(1519년)에 流配 定着한 곳이 禾北으로 이곳에서 후손을 남기는 동안 教學의 氣風을 豐盛하게 하였다. 巨老 출신 羅州 金氏 金英集, 金英業, 金英樂 三兄弟는 純祖 14年 (1814년)에 同榜及第하여 濟州島에서는 물론 全國적으로 주목될 만큼 稀貴한 경우이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 梁有成, 高處亮 등의 科宦들은 三泉書堂을 設立하는데 進력을 하고 高處亮은 三泉

書堂에서 訓學을 하면서 禾北地域의 文風 진작에 일익을 담당하여 오다 鎭海縣監을 끝으로 落鄉하여 줄곧 禾北에서 性理學的 實踐倫理를 몸소 실천하면서 地方 自體 教育에 전념을 하였다.²⁴⁾

한편 金履中, 禾菴 慎鴻錫, 許鉉 등의 禾北 출신 文士들은 斥邪爲正의 思想的 분위기에 동참하면서 禾菴詩集을 남기고 許鉉은 性理學에 대한 학식이 매우 깊었다. 朝鮮朝末期의 三大學派로 통칭되는 華西學派, 盧沙學派, 民齊學派 등을 禾北이란 좁은 지역 안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禾北이 浦口의 위치와 關門이란 데서 濟州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敎學文化가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敎學的 基盤을 갖고 있었다.²⁵⁾ 또한 1800년대말에서 1900년대 初期에는 禾北地域에는 李圭夏, 梁達休, 夫遠柄, 玄商希, 梁榮熙, 金履担, 金在容, 金聖太, 許鉉, 金富雄祖父, 李世文, 安孟正 등 많은 학자들이 先代들의 精神의 기반 위에 漢文書堂을 열어 2世教育에 힘써 왔는데 특히 李美雨 先生은 20여 년전까지 생존하여 옛 書堂教育에서 현대교육의 체제를 갖춘 禾北義塾에서의 教育을 담당하여 일생을 禾北地域 教育에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敎學思想은 중단됨이 없이 新學問의 전당인 禾北義塾을 설립하는데 이르렀고 발전하여 禾北私立普通學校를 설립하게 된 背景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2) 朝鮮時代 關門으로서의 影響

朝鮮時代 濟州島의 關門으로서 禾北은 高麗時代로부터 別刀浦라 하여 浦口로서 기능을 다하여 왔다. 宣祖 34년(1601년) 金尙憲의 「南槎錄」에는 別刀浦口와 朝天浦口에 대해서만 배를 당기를 허락하고 배를 놓는(出船) 날에는 牧使와 軍官이 나와 點檢하였다 한다. 한편 兵船을 감추어둔 만한 곳이 別刀浦라 하여 禾北은 옛부터 浦口로서 발전한 마을이다. 1653년 李元鎮 牧使의 「耽羅誌」에는 水戰所로서 禾北浦가 기록되어 있으며 1678년 禾北鎭이 설치되고 1735년 金倣 牧使에 의하여 城滄이 補修 築造되어 濟州牧을 방어하는 軍浦口로서 또는 一般客이 出入하는 浦口로서 기능을 다해 왔고 1900년대 初까지 濟州의 關門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거기에 禾北浦口를 통하여 드나들었던 人傑도

24) 梁鎮健, 〈禾北浦口地表調查報告〉, 濟州大學 耽羅文化研究所, 1989. 529~539

25) 梁鎮健, 〈禾北浦口地表調查報告〉, 濟州大學 耽羅文化研究所, 1989. p. 54

많았고 島內에 所要되는 官需物資, 조정에 필요로 하는 물자 등이 禾北浦口를 통하여 나가고 들어 왔으리라 생각된다. 이리하여 禾北 사람들은 옛부터 새로운 文物을 濟州島內에서는 가장 먼저 접하였다. 특히 중앙의 高官들이나 流配은 人傑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言行은 당시 禾北 사람들에게는 直接的 敎學이었고, 이를 보고 느끼고 배우는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禾北은 새로운 先進文化를 수용할 수 있었고 남다른 敎學熱을 지닐 수 있었다. 이러한 전통적 역사적 배경은 새로운 開化時代에서 새로운 文物을 받아들이는 데 인색치 않고 꾸준히 새로운 것에 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녀들의 敎育을 위하여 학교를 만들고 新學問을 받아들이는 데 앞장선 것이 아닌가 한다.

3) 日帝治下의 民族主義思想

日帝 植民統治가 시작되고 1920년대가 되면서 國內의 獨立志士들은 武力에 의한 獨立爭取보다는 民族思想 고취에 심혈을 기울이는 시대적 자각을 하게 된다. 국내 각 지방에서 獨立志士들은 民族敎育을 위하여 學校를 설립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한편 日帝는 韓民族을 日人化시키기 위하여 敎育機關이 필요한 時期로 각지에서 學校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다. 禾北國民學校의 경우 1926年度에 설립되었다. 設立者 대표인 康基業 선생의 思想的 背景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으나 당시 時代的 狀況과 學校 설립 직후의 그의 行적으로 보아 獨立思想을 고취하기 위하여 學校를 設立하게 된 깊은 뜻이 숨어 있지 않으나 생각된다. 그 이유는 設立者인 (代表) 康基業 선생은 學校 설립 후 日警의 감시를 받았고 돌연 滿洲로 獨立運動을 하기 위하여 가족을 데리고 禾北을 떠나 갔다. 그 후 1~2년간 정도는 書信으로 學校育成에 대한 걱정을 하였다고 한다. 그후의 行적에 대해선 알 길이 없고 기록으로도 남아있는 行적도 없으나 學校 設立 후 獨立運動을 하기 위해 滿洲로 건너갔다는 사실과 學校 初創期의 학생들이 獨立萬歲를 부르고 잠적한 일 등 學校敎育을 통해 獨立精神이 고취되었다는 情狀을 이해하게 한다. 이렇게 國民思想과 獨立精神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禾北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財政的 부담을 감수하면서 學校를 설립하게 된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한다.

4) 新學問 履修者의 輩出

禾北里民들은 新學問에 일찍 눈을 돌려 1910~1930년대까지 教育에 대한 熱意는 그 어느 마을에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日帝治下의 濟州農業學校는 濟州島內에서는 最高 教育機關으로서 秀才 中の 秀才들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 그 입학의 영광은 그 本人과 家門 나아가 그 마을이 영광이었다. 이 시기에 禾北 출신들이 濟州農業學校를 入學하고 卒業한 人들을 보면 梁致祐 (1912년 2回卒業), 梁洪基(1913년 3回), 康三正(1916년 6回), 任敏浩(1916년, 6回), 金蔣根(1917년 7回), 任鎮浩 (1921년 11回), 金炯洙(1922년 12回), 安秉浩(1923년 13回), 慎洙鎔(1924년 14回), 金泰榮 (1924년 14回), 康源熙 (1925년 15回), 金泰根(1925년 15回) 등 諸氏가 禾北國民學校가 설립되기 전 해인 1925년까지 卒業을 하여 新學問의 教育을 받은 人들이 輩出되었고 이외에도 서울과 光州로 進學하는 人들도 많았다. 당시 島內에서 單位 마을로서 이렇게 많은 人才를 배출한 마을은 찾아 볼 수 없다. 1910년에서 1925년 사이에 12名, 1926년부터 1939년까지 19名이 濟州農業學校를 卒業하므로써 單位 마을로서는 대단한 人材를 輩出하였다. 이 人들은 社會 各階 各層에서 活動을 하였고 당시 新學問 분야에서 禾北里라 하면 島內에서는 그 명성이 대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禾北校가 설립되기 전 해까지 12名에 달해 이들은 禾北里內의 學風과 新文化의 流入에 자극이 되었다. 이러한 新教育에 대한 熱意는 이들에 의하여 直接, 間接으로 先導的 역할과 影響을 미쳤을 것이고 이러한 影響과 바탕이 1926년 禾北私立普通學校를 설립하는데 크게 影響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한다.

2. 國民學校 設立資金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私立學校의 設立은 篤志家의 財產獻納에 의하여 이를 중심으로 學校財團을 만들고 學校를 設立하는 것이 그 常例였다. 그런데 禾北國民學校는 이와는 달리 一般庶民 즉 前 里民들이 後世 教育의 필요성을

禾北里名稱의 變遷과 禾北校의 設立

느끼고 자진하여 誠金에 의한 基金 形成에 시작되었다. 곧 뚜렷한 私立 財團이 없이 禾北國民學校가 設立되었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특수한 과정을 거쳐 설립된 것이다.

당시 學校設立에 필요한 資金을 모았던 文件이 最近 일부 발견된 바 (白子勳所藏)이 文件에 의하면 1921년 (大正 10年)에 회사한 사람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바 1921년 이전부터 學校設立計劃이 이루어졌고 1921년부터 設立資金이 모금되기 시작하여 1925년까지 모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23년 (大正 12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學校設立에 필요한 基金이 마련되는 시기에 이른 것 같다. 當時 學校設立 資金을 募金하였던 日記帳의 序頭를 보면 다음과 같다.

大正拾貳年(1923年) 癸亥正月拾日 學務財政明細 一金貳千壹百七拾九円八
拾四錢也 內譯 借金證書貳拾壹通 貳千〇貳拾八円七拾五錢
現時殘金 壹百五拾壹円〇九錢

위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 2179萬84錢이 總募金額인지 아니면 일부 募金額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喜捨者는 西洞 거주자로서 喜捨者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후 文件 중에 1928년 (昭和3年) 禾北學校 基本金에 대한 大正15年度 (1926年度)에 성립한 借用證書 文件에 禾北學校 設立基金을 부락별로 할당 洞首 책임하에 수금하도록 하였으며 禾北學校 設立者 康基業이 西洞 洞首 白泰胤 西洞公員 玄圭銓 앞으로 證憑證書가 있는 것으로 보아 未納者에게는 借用證書를 받은 것 같다. 당시 學校를 設立하고 學校를 運營하는데 해마다 2,000円~3,000円이 소요되었으며 1927年度 學校運營 經常費가 2469円이 소요되었다고 하는 바 당시 물가를 오늘에 比較하여 보면 白米 一斗 값이 40錢, 쇠고기 一斤 30錢 정도라고 하며 島廳 臨時書記의 日給이 80錢이었다고 한다. 設立基金으로 2179萬84錢을 募金한 바 白米 값으로 환산할 때 43,600,000원에 해당되며 (당시는 쌀값이 매우 비싸고 현재는 쌀값이 싸지만 比較値로 짐작하게 함) 日給으로 계산하면 7年 6個月有值에 해당된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을 해마

다 單位 마을에서 부담하기는 매우 벅찬 재정부담이었으며 주민들의 부담은 대단히 過重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고 학교를 設立하겠다는 선조들의 열의는 그저 놀랍고 경탄하며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禾北校를 바라보며 先祖들의 거룩한 뜻에 오직 숙연해 질 따름이다. 財政 부담 뿐만 아니라 校舍를 마련하기 위하여 住民들은 漢擊山에가서 나무를 하여 오고 돌을 운반하고 터를 닦고 매일같이 부역을 하여 喚風亭 서쪽으로 연이어 2個 校舍를 건축하였다. 당시 경제적 부담과 매일같이 동원되는 부역도 마다 않고 오직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만으로 학교를 만들게 되었으니 기본 자산은 옛 禾北鎭 터와 禾北의 일부 公有地를 基本資產으로 學校設立 인가를 받았다. 이렇듯 어려움을 극복하고 옛 禾北鎭 터 濟州牧을 방어하고 濟州의 關門으로 高官들이 望樓에 올라 시를 읊조리고 북녘에 두고 온 임금을 그리던 精氣어린 옛 터전에 禾北私立普通學校라는 간판 아래 뿌리가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전 里民들이 정성어린 誠金과 勞力으로 設立된 學校가 어간 몇 번의 教育에 관한 法令이 개정되면서 里民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公立으로 개편되고 설립 당시의 資產 역시 현재 教育委員會의 소유자산이 되고 말았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교육위원회는 이것을 불하하겠다는 의도이고 보니 현재 教育委員會와 禾北里民間에 分紮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國民學校의 設立과 發展

禾北國民學校의 設立者 設立年度 및 設立 당시부터의 學校 名稱 등 많은 부분에서 잘못 전해지는 부분이 있어 事實의 證據를 기초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禾北校의 설립자 대표가 康基業 선생으로 모든 濟州教育史料集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設立 基金을 募金할 당시 證憑書에도 설립자 대표 康基業으로 기록되어 있어 설립자 대표가 康基業이 틀림없으나 濟州教育史 (濟州道教育委員會刊), 濟州道誌 (濟州道刊) 등에 禾北校의 설립에 康源孝, 康基業, 梁洪基 등 이 有功한 바 크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부분을 조사 확인한 결과 구전되어 오는 말과 일방적 구술에 의하여 기술되었으며 公式 文件으로 나타나고

禾北里名稱의 變遷과 禾北校의 設立

확인된 것은 康基業 선생 뿐이었다. 이 부분에서 구전되는 말로는 學校設立 推進委員長으로 初代 康源孝, 2代 康基業, 3代 梁洪基 선생으로 전해지나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2代 康基業이 設立代表者로 學校設立 인가가 된 것만은 확실하므로 3代 推進委員長은 존재할 수가 없고 인가된 날로부터 推進委員會는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證憑書를 더 찾아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다. 어찌 되었거나 康基業을 비롯하여 위 세 분들은 禾北校의 설립과 설립 후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만은 당시 이분들이 禾北內에서 재력으로나 그 능력으로 보아 推定이 가능하다.

禾北私立普通學校가 설립되기 전 前身으로 禾北寧信學校, 禾北義塾이 있었는데 이러한 學校 또는 義塾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設立 運營되었는지 자세하게 알 길이 없다. 또한 이러한 教育機關은 당시로서는 私立으로 官의 허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官의 기록에는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濟州教育史(濟州道教育委員會 1979年 發行)에 禾北寧信學校, 禾北義塾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 이를 確認하여 본 결과 1920년 전후하여 당시 濟州農業學校 입학원서에 禾北里 출신들이 禾北寧信學校 卒業 또는 禾北義塾 卒業이라고 기록된 것이 그 전부이다. 筆者의 조사로는 禾北寧信學校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찾을 길이 없고 禾北義塾에 관한 文件은 발견되었다. 이에 앞서 禾北改良書塾이 1908년에 설립되었고 校長이 康原珍이라고 濟州教育沿革誌(1987年)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매우 불확실한 것이며 1919년의 잘못된 기록으로 1908年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禾北義塾에 관하여는 1919年 3月 5日 設立하고 塾長은 愼洙學, 塾監은 康源珍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禾北義塾에 대하여 近來 發刊된 教育史料集에 禾北私塾 또는 禾北改良書堂 등으로 잘못 전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바른 名稱은 禾北義塾이다. (사진 I) <사진 1>에 의하면 1925年(大正 14年)3月23日 禾北義塾 第2學年 學業優等賞狀으로 분명한 것은 禾北義塾이 公式 名稱이었고 禾北私塾 등으로 기록되는 것은 잘못이다. 禾北義塾에는 당시 2學年이 있었으며 賞狀文이 日本語로 되어 禾北義塾의 教育내용이 普通學校 教育내용과 유사함을 짐작하게 한다. 禾北義塾을 母體로 禾北私立普通學校가 설립되었는데 그간 많은 기록에서 設立 年月日, 設立 당시 公式 學校 名稱이 달리 기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賞狀
 第二學年
 白承鉉
 右者品行方正學業優等付賞品
 授與之茲之ヲ表彰ス
 大正十四年三月二十三日
 禾北義塾

<사진 1>

濟州島便覽 (高嶺鍾 1930年 6月 25日 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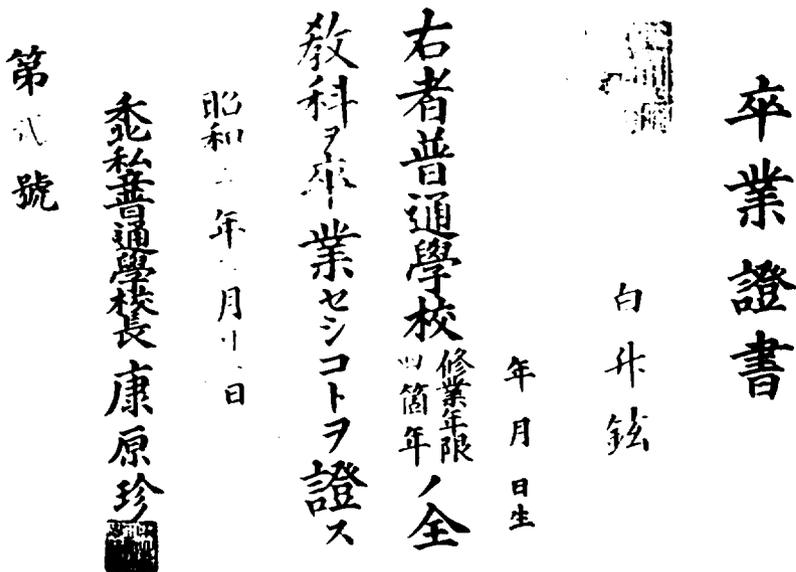
私立禾北普通學校 設立年月日은 大正 15年 (1926年) 7月 9日 授業年限 4年
學級數 5學級

濟州島實記(金斗奉, 1932年 12月 7日 發行) 私立禾北普通學校 設立年月日 大
正15年(1926年) 7月 7日 授業年限 4年

위의 기록에서 設立年月日 1926年 7月 9日과 7月7日로 서로 다르게 기록되
어 있으며 濟州教育史 (濟州道教育委員會刊) 등 몇 권의 近刊 文獻들에 대해서

는 1926年 7月 9日로 기록되고 있어 濟州島便覽을 기준으로 기술한 것으로 一方的 文獻을 참고한 것으로 사려된다. 곧 7月 9日인지 7月 7日인지에 대하여는 확실한 證憑 근거를 찾지 못하여 연구 과제로 넘기면서 近刊 文獻들에서 7月 9日로 확정 기록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한편 學校의 名稱에 대하여 위 기록에서는 私立禾北普通學校라고 표기되었고 심지어 濟州島 教育歷史의 集成이라고 할 수 있는 濟州教育史에는 페이지에 따라 私立禾北普通學校 또는 禾北私立普通學校 등으로 분별없이 표기되었다. 물론 그 뜻은 같겠지만 校名은 고유명사이기에 사람에 따라 이리 저리 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認可된 學校 名稱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筆者가 所藏한 당시 卒業狀을 참고한다(사진2).

〈사진 2〉에서 보면 卒業證書 번호 第貳號로 禾北私立普通學校로 기재되어 私立禾北普通學校는 잘못 표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禾北義塾에서 개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일인이 1925年 3月 23日 禾北義塾 2學年



〈사진 2〉

이있고 1927年(昭和 2年) 3月 12日에는 禾北私立普通學校를 卒業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즉 義塾 過程을 定規學校 過程으로 認定한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기록과 證書를 연대별로 정리하여 學校 名稱이 일반적으로 쓰여진 過程과 公式的인 名稱을 밝히고자 한다.

- 1925年 禾北義塾 (賞狀에 表記)
- 1927年 禾北私立普通學校 (卒業狀)
- 1929年 私立禾北普通學校 (1929年 濟州島生活實態調査)
- 1930年 私立禾北普通學校 (1930年 濟州島便覽 設立年月日 1926年 7月 9日로 記錄)
- 1932年 私立禾北普通學校 (1932年 濟州島實紀 設立年月日 1926年 7月 7日로 記錄)
- 1937年 禾北私立普通學校 (賞狀)
- 1939年 私立禾北尋常小學校 (卒業狀)
- 1943年 禾北公立國民學校 (教育令改定으로 1943年 3月 8日 公立으로 改編)
- 1946年 禾北公立國民學校 (卒業狀)
- 1949年 禾北國民學校 (卒業狀, 現在)

이상과 같이 學校 設立 이후 名稱이 달리 표기되어 왔으며 특히 學校設立年度가 濟州教育史 66쪽 濟州道誌(濟州道 下卷 p 417)에 禾北私立普通學校의 設立年月日을 1920年 7月 9日 기록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學校 變遷過程이나 設立基金의 募金內譯으로 보아 잘못되어 있음을 여기에서 바로 잡아 둔다. 한편 學校의 名稱에 있어서도 禾北私立普通學校가 認可된 公式名稱이며 私立禾北尋常小學校로 改稱되기 이전에 私立禾北普通學校라고 기술된 것은 잘못된 것임을 밝혀 둔다.

1927年度の 學校 現況을 보면 修業年限 4年制로 教職員은 韓人 2人, 學級數 4學級, 學生數 男子 169名, 女子 7名 合計 176名이었으며 1929년에는 教職員 男 4人, 學生數 男 151名 女 6名, 1930년에는 授業年限(修業年限) 4年, 學級數 5學級, 教職員 男 4人 學生數 228名, 經常費 3152円(里民負擔)으로 運營되었으며 1939年度에 學生數 415名에 달하였다. 1939年 3月 23日 授與된 卒業證書에 의하면 證書番號 第634號로 개교 후 14年間に 650여 명의 卒業生을 輩

出하는 長足の 발전을 하여 오다 조국광복 후 4·3사건으로 學校의 건물은 물론 學校의 歷史 및 學籍簿 마저 완전 소실되어 1926年 學校가 설립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명의 학생이 졸업하여 나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비운의 學校가 되고 말았으니 광복 이후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先人들의 거룩한 遺志를 받들어 이어가지 못한 점 禾北里 出身의 한 사람으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4. 結 論

禾北은 옛부터 濟州牧을 방어하기 위하여 朝鮮朝初까지 水戰所가 있었고 1600年代에 들어 禾北鎭으로서 濟州牧의 방어는 물론 濟州 關門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여 왔다. 그 결과 1930年代까지만 하여도 濟州島內에서 단위 마을로는 가장 人口가 많은 마을이었다.

옛 先人들은 高麗時代로부터 禾北浦를 中心한 이 地域이 重要地域으로 인식을 하여 온 것만은 歷史的 기록으로 보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마을이 別刀, 禾北, 拱北 등으로 불리워졌다. 이렇게 불려진 來歷에 대하여는 그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로 확실한 그 연유는 알 수 없다. 최근 마을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 조사 발표하는 것을 보면 마을에서 구전되어 오는 내용을 수집하는 정도이고 그나마 원래 불렸던 古語는 없어지고 표준어 발음으로 수집되는 정도이고 마을 이름이 불려지게 된 연대, 연유, 변천과정 등에서 체계적 조사나 해석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禾北洞에 관한 마을 이름이 변천과정과 불리워지게 된 연유 및 그 글자를 쓰게 된 연유를 어원적 음운변천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禾北은 원래 別刀, 拱北, 禾北으로 마을 이름이 불려지고 기록되어 왔다. 別刀라고 불리워지고 文獻 등에 기록되어 진 것은 高麗時代로 거슬러 올라가며 1600年代 이전까지 別刀라고 하여 오다가 1600年代 이후가 되면서 別刀와 禾北이 並用되어 1907년까지 쓰여져 왔으며, 禾北이라고 부르고 쓰여진 것은 1600年

이후이고 1907年 이후에는 禾北이라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통일적으로 쓰여졌다. 1878年 이후에는 別刀, 禾北, 拱北 등으로 並用되었고 1878年~1907年 까지 拱北이라고 並用되어 그 쓰여진 기간이 짧으며 그후 禾北이라고 統一的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里名이 쓰여진 유래에 대하여는 傳說的 風水地理의 측면보다는 別刀, 禾北이란 名稱이 옛날 濟州의 關門으로서 機能的 측면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명명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別刀라고 할 때 刀字는 일반적으로 “칼도”라고 해석하는데 이때의 해석은 “칼도”가 아니고 “거루도”로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며 이는 別刀의 기능과는 그대로 일치되는 것이다. 한편 巨老라고 하는 名稱 또한 語源的 측면에서 刀字의 “거루”라고 하는 말과 연관하여 漢文으로 표기하는데 巨老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은 앞으로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禾北國民學校에 대하여는 4·3사건으로 그 歷史가 완전 소실되어 學校設立의 過程과 建學理念을 찾는데 고심을 하였고 學校設立이 財團形成이 없이 設立資金과 해마다 運營費 등을 里民들이 調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기 어려운 特別한 設立過程을 거쳐 왔으며 運營되어 왔던 학교이다. 近間에 濟州教育에 대한 歷史的 考察 등을 하는데 있어 禾北國民學校에 대하여 設立年月日에서 學校의 名稱에 이르기까지 잘못 기술되고 있는 바, 當時 卒業證書 또는 賞狀 등을 확인, 실증적 근거에 의하여 設立 및 發展 過程을 추적한 바 禾北寧信學校와 禾北私塾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사려되며 禾北義塾을 禾北私塾으로 誤記한 것으로 생각된다. 禾北義塾을 개편하여 認可된 公式 名稱이 禾北私立普通學校임을 확인하였으며 私立禾北普通學校라고 표기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아울러 濟州道誌(上) 493 페이지에 禾北公立普通學校가 세워졌다고 한 部分도 잘못되었음을 바로 잡아준다. 學校의 設立年月日에 대하여는 1926年 7月 9日과 7月 7日로 기록되고 있어 앞으로 정확한 날짜를 그 근거를 찾아 밝혀야 하겠다. 現 禾北國民學校의 開校日을 7月 15日로 하여 매우 혼동된 形편으로 7月 15日의 개교일은 이해가 잘되지 않는 점으로 설립일과 개교일을 같은 날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